



미국 : 연방정부 공무원 연맹, 정부 섯다운 상황에서 임금 및 노동시간 관련 소송 제기

2018년 12월 31일,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최대 노동조합인 연방정부 공무원 연맹(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AFGE)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임금 및 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12월 22일 시작된 정부 섯다운(shutdown) 상황이 사십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임금 없이 강제로 일하게 하였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미 의회에서 미-멕시코 간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예산 등의 문제로 예산문제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미 정부는 ‘필수적인(essential)’ 또는 ‘예외적인(excepted)’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기능을 자체적으로 폐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섯다운 상황은 앞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¹⁾ 이에 따라 필수적이거나

예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노동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연방 교도소 간수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2명이 연맹을 통해서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들은 정부가 공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위배하였으며, 이들의 요구는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되지 않고 공정한 것으로서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 2019년 첫 기본급여 지급일인 1월 5일 전까지는 필수적이거나 예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들 중 초과근무를 수행한 인원들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1월 6일 현재도 섯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 Politico(2019.1.6), “Government Shutdown 2018: Latest Update from Capitol Hill and the White House,” Retrieved on January 6th, <https://www.politico.com/latest-news-updates/government-shutdown-2018>

2) The Washington Post(2019.1.1), “‘Nothing short of inhumane’: Union sues Trump administration over shutdown,” Retrieved on January 6th,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19/01/02/federal-work-force-shouldnt-be-used-pawn-union-sues-trump-administration-over-shutdown/?noredirect=on&utm_term=.9e1558ddb1b1



미국 : 2018년 한 해, 교원 노조들의 파업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 보여

2018년 교원 노조들의 파업은 8개 주 단위의 파업(웨스트버지니아 주, 버지니아 주, 오클라호마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켄터키 주, 조지아 주, 콜로라도 주, 애리조나 주)을 포함하여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많은 경우 파업은 전체적으로 교원들에 대한 처우가 더 열악했던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9년 1월 시작된 로스앤젤레스 파업의 사례는 진보적인 지역에서도 파업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원들은 강철 제조 노동자나 채굴 노동자 등 전통적으로 노조가 강제였던 집단들에 비하여 파업에 소극적인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2018년 들어 교원 노조의 파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원인으로는 교원들이 파업의 목적을 재정의하여 자신들의 동원(mobilization) 수준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공동체로부터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2012년 시카고 교원 파업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어젠다로서 파업의 목적이 교원들의 처우 개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교원들의 처우 개선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의된 것이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 주 파업의 경우에는 낡은 교과서들과 교보재, 건물 등이 주된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또한 교원들의 처우가 낮아 교원 임용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교원당 학생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공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교원 노조 파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¹⁾ 이렇듯 교원 노조 파업의 프레임이 바뀌면서 교원들의 파업 참여수준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다른 노조 활동의 동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1) The Atlantic(2019.1.22), "America's Teachers Are Furious," Retrieved on November 24th, 2018, <https://www.theatlantic.com/education/archive/2019/01/teachers-are-launching-a-rebellion/580975/>

미국 : 2018년 12월 실업률(3.9%) 견조한 수준 기록

미국 경제는 2018년 12월 한 달간 31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고, 실업률은 3.9%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이며, 기대치보다 양호한 숫자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위대한 일자리 수치가 발표되었다"고 하였으며, 알렉스 아코스타 노동부 장관은 8개월간 실업률은 4% 이하였으며, 특히 유색 인종, 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실업률 역시 낮았다면

서 2018년 미국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RSM 국제 컨설팅 그룹 수석 경제학자 Joseph Brusuelas에 따르면 이처럼 낮은 수준의 실업률은 올해 임금상승률이 3.2%로 견조한 수준을 기록하여, 기존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인들이 일터로 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Ball State University의 Michael Hicks 교수 역시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은 기존에 비정규적으로 일하던 웹사이트 제작자, 집 수리공 등을 보다 정규적인 일자리로 이끄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임금상승은 기업들이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유인책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Michael Hicks 교수는 사용주들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임금상승은 그 명확한 증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Hiring Lab의 Martha Gimbel은 미국 주식시장이 불확실성하에 있고, 노동시장 호조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미 애플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분기 실적 전망치를 15년 만에 하향조정할 것으로 발표했다.¹⁾

1) The Washington Post(2019.1.4), "U.S. economy added 312,000 jobs in December and wage growth gained steam, marking a strong finish to 2018",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19/01/04/saw-strong-job-growth-looks-riskier/?noredirect=on&utm_term=.4c537a9181ed

스웨덴 : 공공고용서비스센터의 노동시장 전망(2018~2020)

스웨덴 공공고용서비스센터는 2018년에 이어 2019, 2020년에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2018년 이전보다 증가세는 더디겠으나 2019~2020년에 새로 창출될 일자리는 111,000개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다.¹⁾

공공고용서비스센터는 2018년에는 경제활동가능인구 기준(16~64세 구간), 85,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약 65,000개, 2020년에는 46,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밝혔다. 일자리 창출로 인해 고용률이 79.5%에 이를 것이

라 전망했다.

고용서비스센터의 전망에 따르면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고용률 또한 증가하여 2019~2020년에 창출될 새로운 일자리 중 80%가량은 이민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밝혔다. 실업자 중 다수가 이민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는 것이 노동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비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이민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고용서비스센터 미카엘 웨베리(Mikael



Sjöberg) 소장은 스웨덴의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더욱 많은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2020년까지의 스웨덴 노동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현재 스웨덴의 서비스산업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은 여전히 숙련된 노동자들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숙련 노동자들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스웨덴 노동시장에는 여전히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해 실업을 택한 구직자들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직업교육 및 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미카엘은 스웨덴 경제가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2020년 이후의 노동시장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 Arbetsförmedlingen(2018.12.12), “Arbetsförmedlingens arbetsmarknadsprognos 2018-2020,” <https://www.arbetsformedlingen.se/Om-oss/Statistik-och-publikationer/Prognoser/Prognoser/Riket/2018-12-12-111-000-nya-jobb-till-2020.html>

스웨덴 : 이민국 2017년보다 취업비자 발급건수 증가

2018년 한 해 동안 스웨덴 이민국은 2017년에 비해 예산이 11%나 삭감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고자 했던 목표치만큼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데 성공했다. 2018년에 49,100명의 이민 노동자가 이민국을 통해 취업비자를 승인받았는데 이는 2017년의 38,400명에 비해 10,700명 증가한 것이다.¹⁾

이민국은 2018년 한 해 동안 총 51,430건의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 중 80% 정도가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웨덴 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 취업비자를 취득한 경우는 20,841건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에 의해 취업비자를 승인받은 직군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한 분야는 전문가(Specialists) 계열

로 이 분야에는 건축가, 변호사, 의사, 교사, 수의사 등이 포함된다. 이민국은 작년 한 해 동안 해당 분야에 속한 7,059명의 이민 노동자들에게 취업비자를 발행했다. 전문가 직군을 제외하고 다수를 차지한 직군은 기술자 분야(7,036건), 서비스 및 돌봄, 영업 분야 종사자들로 나타났다.²⁾

국가별로 살펴보면 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5,148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는 4,966명, 우크라이나, 중국, 터키, 이라크, 미국, 브라질, 세르비아, 이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취업비자를 받은 이민노동자들의 다수는 스톡홀름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8년 취업비자를 취득한 이민자 중 11,749명이 스톡홀름으로 이주하였다.

- 1) Migrationsverket(2019.1.2), "Migrationsverket nådde målen för 2018," <https://www.migrationsverket.se/Om-Migrationsverket/Pressrum/Nyhetsarkiv/Nyhetsarkiv-2019/2019-01-02-Migrationsverket-nadde-malen-for-2018.html>
- 2) The Local(2019.1.3), "How many people got a work permit in Sweden last year?," <https://www.thelocal.se/20190103/how-many-people-got-a-work-permit-in-sweden-last-year>

베트남 : 2019년 새해 주요 노동지표 발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통계국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주요 노동지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4분기 기준 베트남의 법정 은퇴연령까지의 노동가능인구인 15~60세 남성, 15~55세 여성은 약 4,900만 명으로 전년(2017년) 동기대비 약 522,500명이 증가하였고 남성 근로자는 2,680만 명(54.8%), 여성 근로자는 2,220만 명(45.2%)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상 전 연령의 노동가능인구는 5,570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30,700명 증가, 이 가운데 남성 근로자는 2,920만 명(52.3%), 여성 근로자는 2,650만 명(47.7%)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 평균 노동인구는 5,430만 명으로(15세 이상 전체 노동인구 기준) 업종별 종사자 수는 농림수산업이 2,070만 명(38.1%로 전년 대비 2.1%p 감소), 산업 및 건설부분이 1,440만 명(26.6% 전년대비 0.8%p 증가), 서비스업이 1,920만 명(35.3%로 전년대비 1.3%p 증가)으로 나타

났다. 이어 실업률(2018년 전체)은 2.0%로 이 가운데 도시 지역은 2.95%, 비도시 지역은 1.55%로 나타났고, 15세 이상~법정근로연령의 실업률은 2.19%로 이 가운데 도시 지역은 3.10%, 비도시 지역은 1.74%로 조사되었다. 성인(민법상 만 18세 이상) 실업률은 7.06%로 도시 지역은 10.56%, 비도시 지역은 5.73%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8년 4분기 기준 실업률은 1.99%, 15세 이상~법정근로연령은 2.18%, 15~24세의 실업률은 6.78%로 나타났다. 일자리 부족률은 2018년 1분기 1.52%, 2분기 1.43%, 3분기 1.45%, 4분기 1.44%로 전체 평균은 1.46%(전년 1.66%)이고, 도시는 0.69%(전년 0.84%), 농촌은 1.85%(전년 2.0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중 비정규직 비율(농림수산업 제외)은 2018년 56.3%(전년 57.2%)로 도시 지역은 48%(전년 48.8%), 비도시 지역은 63%(전년 64.5%)로 나타났다.¹⁾

-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기관지 바오전신, 2019년 1월 5일자, <http://baodansinh.vn/nam-2018-lao-dong-trong-do-tuoi-lao-dong-la-487-trieu-nguoi-tang-5498-nguoi-d88443.html>



베트남: 송출 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2020년까지 매년 10만~12만 명의 근로자를 해외로 송출하는 목표를 세우고 소득 향상을 위해 인력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 40여 개 국가에서 5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근로자들이 30여 개 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외 송출 인력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일정기간 근무 후 귀국). 특히 유럽, 일본, 대만, 한국에서는 업무에 대한 빠른 적응과 성실함 때문에 베트남 근로자들을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 중 루마니아, 폴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도 간호나 요양, 건강 분야를 중심으로 베트남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003년 해외 노동송출 당시 이들의 직무 교육률은

35%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50%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이를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도 해외 송출 인력의 약 절반가량은 비숙련 노동자로 해외 노동시장의 니즈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자격증 등을 갖춘 숙련 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커 이들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직업훈련 비용 중 약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해당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거나 노동송출 업체가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해외 송출 근로자의 모집과 선정, 교육방법 등을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인력의 질을 높이고 외국어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¹⁾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발표, 2019년 1월 9일자, <http://www.molisa.gov.vn/vi/Pages/chitiettin.aspx?IDNews=29177>, <http://baodansinh.vn/nang-cao-chat-luong-lao-dong-xuat-khau-d88264.html>